

보도	2024.2.15.(목) 조간	배포	2024.2.14.(수)
----	------------------	----	---------------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	책임자	국 장	백규정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안태승	(02-3145-7130)
	금융보안원 침해대응부	책임자	부서장	김영태	(02-3495-9400)
		담당자	팀 장	이득기	(02-3495-9440)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화이트해커를 통한 은행업권 모의해킹 훈련 실시

최근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위협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과 함께 2월 15일(목)부터 21(수)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착한해커)를 통한 「블라인드* 사이버 모의해킹(공격·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 해킹일시 및 대상은행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실시

< 블라인드 사이버 모의해킹(공격·방어)훈련 >

- 기존의 훈련대상, 일시 및 공격내용 등을 미리 협의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도상훈련 방식과 달리,
- 훈련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불시에 화이트해커(금보원 IRIS팀)를 통한 실제 해킹 등을 시도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방어하는 훈련 방식

이는 최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해커의 시각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조치함으로써 은행권의 실질적인 대응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훈련 내용은 국내 19개 은행을 대상으로 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보원이 가상의 공격자가 되어 화이트 해커(금보원 RED IRIS팀)를 통한 서버해킹(침투)와 디도스 공격을 시도하고,

은행은 가상의 공격자(금보원)에 맞서 공격을 탐지·방어하고, 디도스 공격의 경우 비상대응센터로 트래픽을 전환하여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는 일련의 대응을 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불시의 외부 침입 등에 대한 은행의 사이버 위협 탐지·방어 역량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며, 금보원은 이와 관련한 세부 이행점검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실전형 모의훈련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주사와 같다.”며, “이번 훈련으로 금융회사의 사이버위협 대응·예방을 위한 체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금감원은 금보원과 함께 금년 하반기에는 여타 금융권역으로 블라인드 모의훈련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블라인드 실전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보안원의 보도자료(“화이트 해커를 통한 은행업권 모의해킹 훈련 실시”)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